

북미, 고위급회담 건너뛰고 정상회담?

트럼프 연일 조기개최 의지

조만간 일정·장소 공개 분위기

北 실무회담 끌어내기 시작도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개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마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들을 사전답사 중이라는 CNN의 지난 3일 보도도 나온 터라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의 일정 및 장소가 공개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에 비춰보면 다소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통해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을 둘러싼 이견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 정상회담을 연다는 입장으로 이해됐다.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오랜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있어선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미국 사회에서 적지 않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이 지난해 11월 초에서 연기된 뒤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7일 그간의 미국 입장을 생각하면 “비정

상적인 상황”이라며 “북한이 정상회담을 원하니까 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고위급회담에 빨리 나오라’고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먼저 정한 뒤 회담 개최 전에 고위급회담을 열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생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정상회담에만 관심을 두고 고위급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미국이 고려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정상회담 개최일이 일종의 협상 시한으로 기능해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미 간 입장차가 확연해 조율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급회담에서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혹은 고위급회담은 아예 건너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답판을 지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

다. 이는 북한도 원하는 시나리오다. 신고검증을 강조하는 미국 관리들을 상대하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답판을 통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숨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실무 당국자 간의 조율이 생략된 터라 구체성과 알맹이가 부족한 합의로 귀결될 개연성이 더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선 서두르다간 자칫 보유 핵무기와 핵물질은 추후에 다룰 과제로 미룬 채 ‘핵 동결’에 머무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를 향해 발사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확산의 위험을 줄여 훨씬 더 안전하고 훌륭한 미국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핵 동결’ 합의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협상장 향하는 美무역대표단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에서 새해 처음으로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이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양측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무역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7일 베이징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말레이시아 국왕, 왕위 대신 사랑 택했다

임기중 퇴위…러 모델과 결혼

말레이시아의 술탄 무하맛 5세(50·사진) 국왕이 전격적으로 퇴위하자 그가 왕위 대신 사랑을 택한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이었는데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클란탄주 술탄인 무하맛 5세는 2004년 태국 파타니 주의 무슬림 왕족 후손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4년 만에 이혼했다. 이에 따

라 2016년 말 47세의 나이로 5년 임기의 제15대 말레이시아 국왕에 즉위했을 당시 그는 배우자가 없는 첫 국왕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왕궁은 지난 6일(현지시간) 무하맛 5세가 중도 퇴위했다고 밝혔다. 무하맛 5세가 불과 2년여 만에 왕위에서 물러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스 모스크바 출신의 러시아 모델 욱사나 보예보디나(26)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점이 문제가 됐



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말레이시아 왕궁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매체는 두 사람이 지난

해 11월 22일 모스크바 근교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시험관 시술 등을 하는 독일 의료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64〉한유

한유(韓愈, 768~824)의 자는 퇴지이며 하남성 하양 출신이다. 당나라 후기의 정치인, 시인으로 당송 8대가(唐宋八大家)의 일인이다. 고문(古文)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평가된다.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형수 아래서 자랐다. 일찍이 문장에 재능을 보였다.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세 번 과거에 낙방한 끝에 792년 진사과에 합격했다. 지방절도사의 속관을 거쳐 802년 감찰어사가 되었다. 그러나 경조윤 이실의 실정을 탄핵했다가 광동성 양산현령으로 좌천되었다. 807~819년 현종 재위기간 국자감 사문박사, 예부낭중, 형부시랑 등의 직위를 역임했다. 현종은 군사력을 가진 변을 약화시키기 위해 삭번(削藩) 정책을 밀어부쳤다. 무원형, 배도가 번진 세력 진압에

두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는 황제를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극형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배도, 최군 등이 적극 간해 조주자사로 좌천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현종은 계속된 단약의 후유증으로 환관을 죽이는 등 난행으로 820년 암살당했다. 현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하자 복권되어 국자감 제주가 되고 관리의 임명을 관장하는 이부시랑이 되었으나 57세의 나이로 일찍 죽었다.

한유는 문인으로 그 명성을 크게 높였다. 그의 최대 업적으로는 문체개혁(文體改革)을 들 수 있다. 대구와 읍조를 중시하는 화려한 형식의 변려체(駢儷體)를 배격하고 한대 이전의 자유로운 형식 즉 고문을 다시 살리자는 운동을 제창했다. 한유의 고문 운동을 지지한 유종원과 함께 한유(韓柳)로 병칭되었다. 변려문은 형식과 표현에만 치

당송 8대가, 고문(古文) 부흥운동의 주역

앞장섰다. 815년 배도를 따라 회서절도사 오원제 토벌에 공을 세웠다. 공으로 형부시랑이 되었는데 이때 유명한 평회서비(平淮西碑)를 지었다. 한 달 동안 삼혈을 기울인 끝에 명문을 만들어 현종에게 바쳤다. 뛰어난 문장에 탄복한 황제는 이를 돌에 새겨 채주의 자극궁에 세워둘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후일 현종은 한유의 글을 지우라고 명한 뒤 한림학사 단문장에게 석비에 새긴 글을 다시 지으라고 명하였다. 장안의 정쟁에 휘말린 것이다.

819년 강력한 반불교주의자인 한유는 현종이 불골(佛骨)을 궁중으로 맞아들이려 하자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려 단호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종은 환관이 신책군을 이끌고 교외로 나가 사리를 맞이하도록 하였다. 3일간 황제의 공복행사가 이어지고 장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한유는 글에서 한나라, 위나라 이후 불교를 숭상한 국가들이 한결같이 국난에 시달렸음을 지적

중해 배움이 적은 사람은 접근하기 어려워 지식층과 귀족층이 주로 이용했다. 결국 안사의 난 이후 자유로운 형식의 고문을 다시 쓰자는 운동이 세를 얻었고 한유, 유종원 대에 이르러 크게 지지받게 된 것이다. 한유는 문장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내용에 올바른 도리만 담겨 있으면 대구, 운율 등의 형식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문이제도(文以載道)라고 한다.

한유의 문장론은 한마디로 “도가 문장에 드리워진다”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장이란 도를 재현한 것이라는 문도일관(文道一貫)의 자세를 보여준다. 유가의 문학을 그 기본적 토대로 삼고 있다. “내가 옛것에 뜻을 두는 것은 단지 그 문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는 문과 도가 하나라는 문도일원론, 문도합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일생 반불 입장을 견지했다. 승려들의 특권에 반대하였다. 도가의 초자연주의적 무정부주의적 혼란을 경계했고 불가의 탈속적 삶을 비판했다. 도교와 불교가 봉건적 사회질서를 왜곡한다고 보았다. 공맹의 유가 도통론을 주장했고 스스로 맹자의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그의 유가 이론은 후일의 신유학 또는 송명리학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2번지의 4필지, 대지 약540평 (343-2-141평, 343-1-260평, 344-30평 / 341-80평,340-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6차선 도로접, 전면75M
- 대출-22억7000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타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상담후결정
- 문의 - 010.3605.5000